

P17

가지 시설재배에서 발생하는 잣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ea*)의 발생

김철승, 이재필, 정순재, 하상영, 문병주, 송주희, 임은경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오래 전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온 가지는 1993년부터 1998까지 일본에 217M/T을 수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 및 내수용으로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는 “장자” 품종을,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 대저에서는 “축양” 및 “시부끼” 품종 등을 일본과 계약 재배하여 2000년도에는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하는 등 대규모 시설재배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재배 특히 부산근교와 경남일대에서는 10월부터 익년 6월까지 연중 하우스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우스내의 높은 습도로 인한 각종 병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잣빛곰팡이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의 가지재배 하우스를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한 3지역의 가지재배 하우스에서 발병율을 조사한 결과 각각 38.0~52.0로서 평균 46.0%의 발병율을 나타내었다. 이 병은 잎에서는 끝부분부터 마르고 갈색으로 잎 안쪽으로 진행되어 낙엽되거나, 대형의 원형 또는 부정형의 병반이 형성되어서 잎 전체가 고사되었다. 꽃에서는 꽃잎의 끝부분부터 감염이 되어 꽃전체로 진전이 되어서 고사되거나, 감염된 꽃잎이 부착된 어린 열매 조직은 갈색으로 변색됨과 동시에 함몰이 되고, 원형또는 부정형의 병반으로 진행되다가 전체가 짓무르게 되면서 잣빛의 균사와 포자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병반으로부터 분리한 병원균을 분생포자 형태, 크기 균총의 형태 및 색깔을 등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병원성을 검정한 결과 *Botrytis cinerea*로 동정되었으며, 이 균주를 가지의 잎, 꽃 및 열매에 인공 접종한 결과 포장에서와 동일한 병징을 나타내었으며, 접종원에 따른 병원성 검정에서는 30% 토마토 주스를 이용하여 만든 포자부유액으로 접종했을때가 가장 발병율이 높았다.